

# 달러 강세·엔화 약세... 지역 수출업체 희비

### 對日 수출업체 “죽을 맛” ... 對美 업체 “한숨 돌렸다”

### 엔화 하락 지속 전망에 환보험 가입으로 위기 대처

#1. 호주에 연간 10만 달러가량의 골프 공을 수출하는 광주의 A업체. 최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로 올라가면서 영업이익률이 20% 정도 개선됐다. 달러화가 1010원대까지 곤두박질했던 지난 6월엔 호주 현지법인의 인건비마저 감당하지 못할 처지였지만 달러화 상승으로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한시름을 놓은 것. A업체는 현재 환율이 유지될 경우 내년엔 유럽 수출까지 계획하고 있다.

#2. 일본에 500만 달러 어치의 전복을 매년 수출하는 광주의 B업체는 요즘 ‘죽을 맛’이다. 엔화가 900원대 초반까지 하락하면서 마진 없는 장사가 수 개월째다.

엔화 하락을 견디지 못한 이 업체는 올해 일본 현지의 전복값을 20% 가량 올렸다. 하지만 비싸진 전복값에 오히려 매출이 감소했다. 엔화 약세가 계속될 경우 국산 전복 수출도 힘들어질 위기다.

달러화 상승과 엔화 하락이 맞물리면서 지역 수출업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주로 달러화로 결제하는 대미 수출업체는 ‘한숨 돌렸다’며 환한 표정이지만 잇따른 엔화 하락에 이익은 커녕 장사마저 포기해야 할 판인 대일 수출업체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2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1106.8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원·

엔화는 934.31원을 기록했다. 달러화는 지난 3월 1080원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타며 가파르게 떨어졌고, 지난 6월말과 7월 초에는 1010원선으로 연저점을 경신했다. 이후 달러화가 강세로 가기 시작하면서 지난 3월의 연고점을 넘어 1100원대까지 상승했다.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등락폭을 겪으며 지난 6월 수출포기 상황까지 갔던 대미 수출업체들은 현재 환율이라면 수출전선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여름엔 제품을 팔아도 이익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수출에 회의적인 생각마저 들었다”며 “하지만 달러화 상승에 영업이익이 좋아지자 수출확대도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현재 분위기를 설명했다.

대일 수출 업체들은 엔화 약세에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2012년 한때 1500

원대를 넘었던 엔화는 지난해 1월 1200원대로 하락했고, 올 초 1010원대를 등락하다 이달 들어 연중 최저점인 930원대까지 떨어졌다. 급격한 하락세 속에 대일 수출기업은 ‘마지막해 장사하는 것’이라고 성토중이다.

B업체 관계자는 “마지노선을 900원으로 잡고 있는데 그 밑으로 떨어진다면 수출을 해도 본전도 못 건져 의미가 없다”며 “일본에서도 경쟁력을 잃은 국산 전복보다는 미국이나 호주로 수입선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엔화 환율 상황이 갑자기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서라도 위험성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환보험에 가입해 위기를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65.83 (+0.61)
- ▲ 금리 2.08% (+0.01)
- ▲ 코스닥 541.53 (+2.08)
- ▼ 환율 1106.80원 (-6.70)

## 기아차 쏘울 전기차, 노르웨이 올해의 차 선정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쏘울EV(전기차)가 노르웨이에서 ‘2015 올해의 차’에 선정됐다.

2일 기아차에 따르면 쏘울EV는 아우디A3 하이브리드(2위)와 폴크스바겐의 파사트(3위)를 제치고 노르웨이 진출 사상 처음으로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

쏘울 전기차는 유럽기준 212km에 달하는 동급 최고의 주행거리와 세련된 디자인, 뛰어난 공간 활용성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기아차의 친환경 이미

미지를 높여 유럽 내 친환경 차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노르웨이는 친환경 차 수요가 연간 자동차 판매량의 20%에 달하며 지난해에는 테슬라S가 올해의 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유럽의 대표적인 전기차 선도국이다. 올해의 차는 소비자들에게 상품 구매 정보를 제공하는 노르웨이의 대표 단체인 ‘딘사이드’가 선정하며 차량뿐만 아니라 의류, 식음료, 전자, 금융 등 전 품목에 걸쳐 순위를 매겨 평가한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금호타이어 올 임단협 합의 불투명

노조, 사측 최종안 수용 불가  
워크아웃 졸업 악영향 우려

연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졸업을 앞둔 금호타이어가 올해 임단협교섭 협상을 두고 ‘일촉즉발’의 위기에 다가섰다.

2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3000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열고, 찬성 의견이 많을 경우 파업 등 단체행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5월부터 26차례에 걸쳐 분교섭을 갖고 있으나 임금 인상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금호타이어에 대한 채권단 실사가 진행되면서 ‘쟁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노조는 실사가 끝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쟁의행위 투표 등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사측은 1일 최종 협상에서 격려금 150% 지급과 노사화합 무쟁의 격려금 100만원 지급, 워크아웃 연장 시 임금 반납분(기본급 5%, 상여금 200%) 내년 1월 환원, 동일임금 적용구간 해소를 위한 임금 체계 개선(임금인상 5.08% 효과), 정년 연장(만 60세) 및 임금피크제 시행 등 이전보다 개선된 합의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핵심 요구안인 임금 9.6% 인상과 통상임금 확대 등에 대한 수용가능한 대안이 없다며 사측의 최종안을 거부한 상황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상승

광주와 전남지역 11월 소비자물가가 나란히 상승했다.

2일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11월 중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광주는 1.0%, 전남은 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1(2005년 기준=100)로, 전달에 비해서는 0.2% 하락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지역도 소비자물가지수가 108.63으로 전달보다는 0.2% 하락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1%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도 108.04로, 지난해 11월보다 0.8% 올랐다.

1년 전에 비해 공업제품은 0.4% 하락한 반면 농축수산물물은 0.4%, 서비스도 1.2% 상승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2일 오후 광주시 남구 송암동에 문을 연 LPG 충전소가 ㄹ당 795원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차량 LPG값 ㄹ당 700원대 진입

### 5년만에 ... 휘발유 가격도 1500원대 눈앞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자동차용 LPG가격이 5년 만에 ㄹ당 700원대에 진입했다. 앞으로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현재 광주 지역 LPG충전소의 자동차용 LPG가격이 최저

795원을 기록했다. 평균 판매가격 역시 866원으로 지난 주에 비해 9원이나 하락했다. 최고가는 999원으로 최저가와의 가격 차이가 204원으로 벌어졌다.

광주 남구 송암로 GS칼텍스 반디가스 송암점과 광산구 목련로 SK가스(주)제일에너지가 ㄹ당 795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광산구 하남대로 에스오일 빛고를 충전소

는 798원이었다. 또 광산구 하남대로 E1반디가스 신가점이 799원에 판매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주유소들이 800원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동절기 수요증가로 가격이 올라가던 예년과는 달리 자동차용 LPG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택시기사 등 소비자들의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업체에 따르면 사우디 아람코는 지난달 30일 프로판·부탄 등 국제 LPG가격을 전

월 대비 각각 9.8%(60달러) 5%(30달러) 인하한 ㄹ당 550달러, 570달러로 통보했다. 두 유종 모두 500달러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 2010년 8월 이후 처음이다.

업체 관계자는 “국제 LPG가격 급락에 따른 영향으로 12월 국내 LPG 공급 가격이 kg당 109원이 내렸다”며 “국제 LPG가격은 하락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돼 국내 LPG충전소 가격의 추가인하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지역의 휘발유 가격도 21주 연속 내리면서 2일 현재 광산구에 ㄹ당 최저 1629원에 판매하는 주유소가 등장하는 등 15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신보, 호남지역 매출채권보험 1조원 돌파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신보보증기금에서 운영 중인 매출채권보험 인수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본부장 홍운기)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현재 호남지역 매출채권보험은 5480억원을 인수해 하반기 인수목표액 483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또 올해 인수목표액을 9528억원으로 세운 가운데 현재까지 1조5200억원을 인수해 금년도 연간 목표액도 조기에 달성했다. 지난해 11월말에 8361억원을 인수한 것에 비하면 25%가량 증가한 셈이다.

매출채권보험 제도는 거래처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어음 또는 외상매출금)에 대해 보험가입 후 거래처 부실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중인 제도다. 중소기업은 보험금액의 0.1~5%의 수수료를 내고 거래처 부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홍운기 신보 호남본부장은 “올해 처음으로 호남지역 매출채권보험이 1조원을 돌파했고, 비보증기업에 대한 매출채권보험도 5000억원 이상 인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

## 4층상가주택

주인 직매 H. 010-3605-5000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19번지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텔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지하 -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 - 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 - 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 - 35평, 주택 (방3 화2 거1)  
4층 - 35평, 주택 (방3 화2 거1)

■ 시세 및 감정가 - 7억2천만원

■ 일시불 매매가 - 6억2천만원  
(융 4억 가, 보 2억에 월 270만 가)

■ 엘리베이터, 주차장, 텃밭, 도시가스, 전체 올 수리